

인공수정센타 운영으로 회원농가 생산성향상을 꾀하는

양 산 지 부

- 추 용 진 -



◀ 좌측부터 정대철
초대지부장, 최정욱
전지부장, 이응철
지부장, 박미연씨,
조영웅회원의 모습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양돈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양돈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돈 여건은 사료값 인상, 돼지고기 수입자유화,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그리고 분뇨처리 규정 강화에 대한 대책 등 넘어야 할 장벽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함께 '96년 6월 현재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6,402,715 두로 점차로 증가하고 사육가

구수는 37,683가구로 감소하는 전업화, 대형화 추세이다.

이처럼 양돈규모가 전업화, 대형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요구됨에 따라 이제는 돼지의 양적 생산성 향상단계에서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의 단계로 탈바꿈할 때이다.

인공수정은 고능력 종돈의 정액을 교배에 이용함으로써 최상위 종돈의 유전능력을 육종개량 뿐 아니라 비육돈 생산에 까지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양돈장의 주간관리가 용이하며, 웅돈사육두수의 감소, 하절기 번식성적

저하 등 자연교배시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공수정은 돼지고기 품질의 고급화, 균일화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수정의 이점을 회원농가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지부를 찾아보았다.

균일한 돼지 생산을 위해 인공수정센타 설립

“돼지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때문에 전 회원이 공산품처럼 똑같은 돼지고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인공수정센타를 설립했다.”라고 이응철 지부장은 양산지부 인공수정센타 설립동기를 설명한다.

경남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에 소재한 양산지부(지부장: 이응철)는 88년 양산서부지회로 시작하여 작년 2월에 양산지부로 바뀌었다. 양산지부는 총 68명의 회원과 지부장, 부지부장, 그리고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부회원 모두가 94년 10월에 설립된 양산 양돈영농조합에 속해 있으며, 돼지고기 품질개선탄지로 지정받아 돼지고기 수출을 하고 있다.

양산은 돼지고기 수출여건이 좋고 대도시인 부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도 용이하다. 양산지부 회원의 돼지 사육규모는 총 5만두로 회원의 1/2정도가 1,000두 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양산지부는 양산양돈영농조합 회원들의 출자로 92년도에 2층으로 된 협회건물을 마련하여 2층에 사무실과 회의실을 쓰고 있다.

인공수정센타(양산시 상북면 신전리)는 부지 800평, 축사 64평, 사무실 그리고 정액제조실로 이뤄져 있으며, 인공수정



▲ 인공수정센타 건물. 고능력 웅돈들의 안정을 위해 항상 음악을 틀어 놓는다.

사 2명이 캐나다에서 수입된 종돈 16마리를 관리하고 있다. 양산지부는 인공수정센타를 통하여 회원농가들이 수출규격돈을 생산하고 돼지고기의 품질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정사에 의해 채취된 정액은 회원농가에게 1엠펙당 1만원씩 2개의 엠펙로 공급되며, 양산지부는 신선한 정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에 주문을 받아 각 농가에 필요한 양을 배달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농가는 정액보관고, 주입기, 소독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으로 자돈의 체질이 강건해지고, 사료효율과 육질개선으로 판매시 높은 등급을 받아 단가를 높게 받는다

고 한다.

양산지부는 1년간을 인공수정 홍보기간으로 정해 아직까지는 인공수정센타가 적자를 보고 있으나 회원 농가들은 웅돈의 사육두수가 줄어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이응철 지부장 농장의 경우 인공수정 실시 이후 웅돈 10마리에서 지금은 발정확 인용으로 2마리만 남았다고 한다. 이응철 지부장은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회원농가가 1년에 2~3억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고, 직접적인 이익외에 돼지고기 품질이 개량된 것을 포함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한다.

한편 이응철 지부장은 수정된 육돈이 출하되면서 품질이 인정되어 정액공급이 부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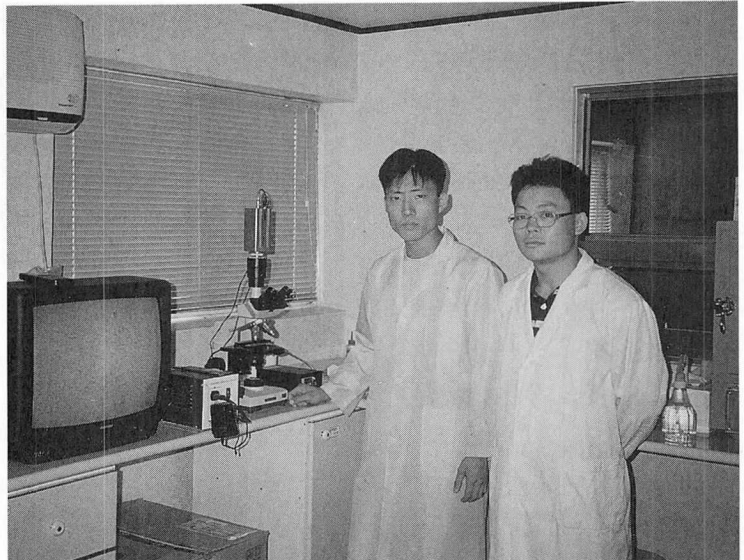
정도로 농가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한다. 앞으로 회원 전 농가에게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 축사 1동을 더 짓고 30마리의 고능력 종돈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공동 분뇨 저장조를 설치해 주어야

양산지부는 매월 월례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돈 신기술 교육과 회원들간의 교류를 하고, 일년에 두번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통해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의 길흉사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전 회원이 축의금을 모아 전달한다.

양산지부는 활성화를 위해 각 면단위에 분뇨 저장조를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웅철 지부장은 정부차원에서 액비저장조를 만들어 주고 지부에서 이를 운영하게 되면 양돈분뇨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동 분뇨처리장을 정부에서 설치하여 주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차선책으로 면단위로 5,000만원 정도 자금이 드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주어 공동으로 액비를 숙성시켜 유기질 비료로 토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돼지 정자의 운동이 보이고 있는 모니터 앞에서 이심현(좌), 안석명(우), 수정사의 모습

강조하였다.

한편 양산지부는 올해 회원 출자와 보조금으로 2,500만원 상당의 5톤 분뇨차를 구입하여 회원들이 분뇨를 초지에 살포할 때 이용하고 있다.

양산지부는 8년전부터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2명의 판매사가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를 수출업체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판매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회원들간의 단합이 잘되어 있다는 이지부장은 지부사업으로 회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지 회원들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내년 양산읍에 판매장사업을 전개할 예정인 양산지부는 회

원농가에서 규격돈을 생산하여 앞으로 양산고유의 브랜드화로 고품질, 고가격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이웅철 지부장은 인공수정센타를 잘 활용해서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고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부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료값 인상과 환경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돈업 종사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